

예쁘진 않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매력은 '자신감'

행복한 책 읽기

권대웅 '당신이 사는 달'
(김영사 펴냄)

우리는 꼬리치기 위해 탄생했다

스티브 다얀 지음

수컷 공작의 화려한 깃털은 암컷을 유인하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거주장스러운 것이다. 천적의 눈에 더욱 잘 포착될 수 있어 위험하고, 탈출하는 데도 애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수컷 공작은 여전히 숲 이곳저곳에서 커다란 깃털을 활짝 펴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만 여전히 이성을 돕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왜일까?

세계적인 성형외과 전문의 스티브 다얀의 '우리는 꼬리치기 위해 탄생했다'는 이 질문이 하나의 답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또 더 나아가 유혹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고 역설한다. 보호색이 아닌



시간·돈 들여 이성에 친절 베푸는 이유

결론은 꼬리치기 위해서

男, 생식능력 뛰어난 여성에 끌리고

女, 안정적인 자원 공급해주는 짝에 매력

화려한 깃털은 분명, 야생의 핸드캡이지만 짝짓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성에게 쏟는 정성과 친절도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연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저자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헤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첫 아이가 일곱 살이 되는 무렵이다. 이 시기에는 둘째 아이를 갖거나 생식 능력이 더 뛰어난 짝을 내면의 '경계 경보'가 켜진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재미

있는 것은 이때의 남성들은 흰 피부와 동일한 입술을 가진 여성에게 끌리고, 여성은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점이다.

또 외모는 타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외모가 사회적 활동에 중요한 요소인 집단일수록 성형과 다이어트 등 외모를 가꾸는 열풍이 분다.

이처럼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다.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진 오지의 남자와 대도시의 남자가 같은 여성의 사진에 반하

는 것을 예로 들어 문화와 문명에 관계없이 인간 본성이 자연스러운 것에 끌리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인위적으로 창조해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며 아름답지 않아도 매력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자의 병원에 방문한 한 여성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의 TV에 출연하는 유명인이며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었다. 저자는 그녀의 매력은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소개했다.

또 타고난 아름다움이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저자는 인상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로 자세, 냄새, 복장, 표정 등을 꼽았다. 이들 요소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달을 만났다. 달빛이 품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이 환하고 따뜻해졌다.

이 책은 인류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 온 달을 주제로 한 산문집이다. 권 시인은 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넘친다. 시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을 시적인 문체로 풀어놓았다.

시인이 바라보는 달에 대한 시선은 가슴이 울컥해질 정도로 아름답다. 의성어가 와그르르 쏟아지고 형용사가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 달빛 서정이 범벅이다.

글의 시작부터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두근거린다.'라고 말한 시인은 독자를 가슴 뛰게 한다. 두근거림 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다. 모든 생명이 숨을 쉬고, 죽음은 또 다른 성장이고, 하물며 영혼까지 성장한다니 시인이 아니라고는 믿어볼 수 없는 달에 대한 사유가 가득 들어있다.

살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까.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인의 번뜩이는 어휘력이 살아 움직인다. 명사는 물론 부사들도 살아서 숨 쉬고 마치 성장하듯 날개를 편다.

'진달래 분홍 꽃 이름을 '문득'이라 불러본다.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피어난 목련꽃을 '출연'이라 이름 붙여본다. 담장에 짙게 나오는 개나



시인이 들려주는 달빛 서정

리 '불현듯'이라 불러본다. 봄밤에 핀 벚꽃을 '와락'이라 불러본다. 그렇게 문득, 출연, 불현듯, 와락 붙여 붙였다.'

'슬픔을 주황이라 불러보자. 고통을 분홍이라 불러보자. 아픔을 연두라 불러보자. 눈물을 사랑이라 불러보자. 우리 그렇게 달처럼 둥글게 환하게 불러보자.'

비단 봄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송고하다.

달은 참 좋은 에너지다. 밝고 따뜻하며 환하고 등글다. 이 책도 그렇다. 마치 달빛이 꽃잎을 찍어 써내려간 것 같은 글씨와 달 그림이 있어 독자들에게 달의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 있다. 시인이 여행했던 사진도 볼 수 있어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짝 맞다.

시인에게 달은 '거울'이다. 거울을 통해 마음속 세상을 바라보는 법과 고단한 인생길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려준다.

또한 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 '주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은 너무 강렬하면 피해를 준다. 구름은 폭풍우를 몰고 올 수 있고, 태양은 너무 뜨거우면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간다. 그러나 달빛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앞서가지 않는다. 피해도 없고 그저 환한 에너지로 밤마다 찾아와 어둠을 밝혀주고, 뜨겁지도 세지도 않게 우리 머리 위를 밝혀주고, 외롭고 무서운 존재들을 쓰다듬어주고,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어준다. 때론 길을 잃은 마음에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된다. 달도 아낌없이 주는 그리운 나무가 된다.

어느날 문득 길을 걷다가 하얀 낮달을 보게 될 때가 있다. 파란 하늘에 외롭게 걸려 동동 떠가는 것을 본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묵묵한 달을 보고 말을 붙여보고, 달에 대한 시를 쓰고, 아껴둔 추억 한 자락으로 고향에 게신 엄마 생각이 나서 잠시 고개를 떨군다. 낯달마저도 그리움이 물러와 하얀 눈물이 되어 스민다.

그리운 모든 것은 달에게 들어있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새로 나온 책

▲마음의 함정=스페인 인지심리치료학의 권위자 라파엘 산탄드루가 알려주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 책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행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의 날개·1만5000원>

▲단숨에 읽는 에피소드 음악사=음악 저널리스트 크리스티아네 테빙켈의 두 번째 책. 전작 '음악회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가 클래식 초보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클래식 안내서라면, 이 책은 방대한 서양 음악사를 에피소드 위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음악사의 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 사회, 문화를 넘나들며 음악 발전의 동인들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열대림·1만6000원>

▲우리 몸이 원하는 맛의 비밀=맛은 쉽게 풀기 힘든 비밀이 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밥상에서부터 어렵게 가공하고 조리해서 만들어지는 요리까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궁무진하다. 질문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단순히 건강이나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진정한 의미를 지닌 '맛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문당·1만3000원>

▲참 나쁜 학교=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쉽게 풀어쓰고, 그 해법으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더불어 배우는 자세에 있다는 단순명료한 진리가 담겨있는 책. 학교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뀔 수 있고 교육의 변화를 통해 기성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새로운 학교, 즉 '제3의 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어른들의 의식과 행동이 먼저 변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갤러리·1만3000원>

▲연예인이 되기 위한 34계명='웃찾사', '도전! 1000곡' 등 많은 인기 장수프로그램을 만든 현직 PD 이동규 교수의 책. 연예인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34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쾌한 방향과 철학을 제시해주고 있다. 책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연예계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지방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행복한책읽기·1만5800원>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IT분야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는 인터넷 및 IT와 관련된 최근의 부조리한 사회적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인터넷의 역사와 근본철학, 문화적인 가치를 알아야 할 때라고 절실히 느끼며 책을 집필했다. 인터넷의 태동과 탄생, 그 발전과정과 현 시대의 진단, 더불어 미래의 예측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역사 들여다보기'를 책의 기본 구성으로 잡았다. <메디치·1만6000원>

어린이 책

▲윤두서(시대를 앞서간 선비화가)=조선 후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나라 미술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화집'. 그의 대표작이자 국보 제240호인 '자화상'을 비롯해 '나물 캐는 여인', '유하백마도', '동국여지도' 등 30여 점의 작품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 <나무숲·1만5000원>

▲마루타 소년=마루타가 된 경복이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일본인 소년 테츠오를



는 비정한 어른들의 세상 속에서 우정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아이앤북·9500원>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 중국의 고사 '우공이산'(우공이 산을 옮기다)을 새롭게 패러디한 그림책. 밍로는 커다란 산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산을 옮기기 위해 삽을 꺼내 드는 대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에게 달려갔다. 밍로는 과연 이 커다란 산을 옮길 수 있을까? <길벗어린이·1만원>

▲셋! 엄마에게 비밀이야=애완동물을 바르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의 시선에서 풀어낸 동화. 엄마 몰래 아파트 옥상에서 햄스터를 키우는 남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애완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귀여워하고 사랑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노란돼지·1만원>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투션셋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게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86)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